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現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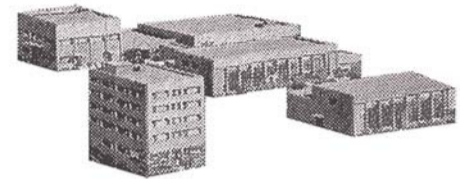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 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